

**사무엘기상·하에 나오는
다섯 주요 인물에서 볼 수 있는
좋은 땅을 누리는 것과 관련된
영적인 원칙과 생명의 공과와 거룩한 경고**

8/8 월요일

아침의 누림

빌 3:13-14

13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14 나에게 주실 상을 위하여 핏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위로 부르셨습니다.

갈 4:19

19 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을 위하여 해산하는 진통을 겪습니다.

갈 1:15-16

15 그러나 나를 모태에서부터 따로 분별하시고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16 내가 그분의 아들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파하도록 하시려고, 그분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나는 즉시 어떤 사람과도 의논하지 않았고,

엡 4:14-16

14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15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6 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사 50:4-5

4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르침받은 이의 혀를 주시어 지친 사람을 말로 붙들어 주는 법을 알게 하셨다. 그분은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 주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 주시어 가르침받은 이같이 듣게 하신다.

5 주 여호와와는 나의 귀를 열어 주셨으며 나는 거역하지 않았고 돌아서지도 않았다.

역사서인 사무엘기상·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누림을 위한 분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책들이다. 이 책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올바른 특별하며 심지어 완전한 길을 계시한다. 이것에 관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께 부합하는 사람들, 즉 그분 자신의 복사판인 사람들을 얻기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사무엘기상 1 장부터 사무엘기하 1 장까지에서 다루어진 긴 기간의 역사에는 주요 다섯 인물, 곧 엘리와 사무엘과 요나단과 사울과 다윗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하여 이 다섯 인물이 주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9 장, 149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엘리는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 출생에 의해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으로서 엘리는 열두 지파에게 할당된 모든 좋은 땅의 최상의 몫을 누릴 권리를 가졌다(민 18 장).

엘리는 자신의 악한 두 아들을 느슨하게 징계 함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경시하였다 (삼상 2:28-

29). 이로 말미암아 비극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그의 역사가 끝난 것, 좋은 땅에 대한 그의 누림이 종결된 것, 그리고 신성한 계시 곧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일에서 제사장 직분이 쇠퇴한 것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엘리에게서 교훈을 배워, 하나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매우 존귀하게 여겨야 한다.

엘리는 제사장 직분을 진부해지고 기울어져 가게 한 제사장이었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9 장, 150 쪽, 1 장, 11 쪽)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것에 신선하고 새로우며 살아 있는 젊은이들을 많이 얻으시는 것이다. 우리 중 누구도 늙어서는 안 된다. 늙는다는 것은 고정되고, 정착되고, 점유된다는 것을 뜻한다. ... 우리는 항상 젊고, 새롭고, 새로워지고, 신선하고, 살아있기를 훈련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이 젊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일을 해내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 주님의 움직임이 전진하도록 그분께 길을 내어 드릴 필요가 있다. 나는 주님께서 그분의 길 안에서 전진하시도록 여러분이 살아 있고 신선하며 새로운 통로가 되어 드리기를 바란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에게는 자신을 주님께 드려 그분과 동역하는 것이 요구된다.

나는 우리가 이 교통을 받아 주님께 이렇게 말하기를 바란다. "... 저는 어떤 것에도 고정되고 정착되고 점유되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당신의 새로운 움직임을 위해 당신께 전적으로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땅에서 당신의 최신의 움직임을 위해 제게 오셔서 저를 점유하시고 취하시고 소유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주님께 기도한다면, 우리는 시대를 전환하는, 즉 시대를 바꾸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항상 하나님에 의해 수행되는 새로운 무언가가 있다. 성령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수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안에서 일하시며

움직이고 계신다. 그분은 준비되어 계시지만, 그분과 동역할 몇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오늘날의 종교의 상황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다. 하나님은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 원하신다. 그분은 생명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에서 새로운 일을 해내기 원하신다. 교리들, 형식들, 조직, 의식들, 조직화된 종교의 규례들, 기적적인 은사들은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없으며,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수도 없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갈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무언가를 해내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충만하고 살아 있는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알려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표현되기를 갈망하신다. ... 우리는 주님께 우리가 종교를 위해 여기에 있지 않고, 가르침이나 교리나 은사들을 초점으로 삼고 있지도 않다고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 오직 우리는 백 퍼센트, 살아 계신 분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 여기에 있다. (위트니스 리 전집, 1964 년, 1 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젊은이, 1 장, 209-21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4 년, 1 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젊은이, 1, 3 장

8/9 화요일

아침의 누림

삼상 3:10, 20-21

10 여호와께서 오셔서 곁에 서시어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부르셨다.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이 종이 듣고 있습니다.”

20 그리하여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여호와의 신언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다.

21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거듭 나타나셨다.

여호와와 실로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을 사무엘에게 계시하셨다.

눅 10:39

39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고후 3:16-18

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벧전 5:5-7

5 마찬가지로 청년들은 연장한 이들에게 복종하고, 모두가 서로를 향해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이들을 대적하시나,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6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겸손해지도록 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7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모든 신분과 직무에서 신실했다. 레위인으로서 사무엘은 온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나실인으로서 그는 실패 없이 자신의 헌신을 지켰다(삼상 2:35). 제사장-신언자로서 사무엘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위해 말했고, 신언자 직분의 시작을 가져옴으로 신성한 계시에 있어서 기울어져 가는 제사장 직분을 대치하였다. 사사로서 그는 하나님께 신실하고 백성에게

공정함으로 사사 직분을 끝내고 왕의 직분을 이끌어 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위해 시대를 바꾸었다.

사무엘은 온 일생 동안 좋은 땅에 대한 자신의 몫을 최대한으로 누렸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약속된 좋은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할당해 주신 몫을 누린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관해 조금의 결함도 없었다.

사무엘의 역사에서 유일한 결점은 그가 자신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사사로 임명한 것이었다. 그의 아들들은 그의 길을 따르지 않았으며,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은 왕을 요구했다(삼상 8:1-7). 인간의 측면에서는 사무엘이 이 문제에서 실수를 한 것이지만, 이 실수를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백성 가운데 있는 상황을 다루실 수 있으셨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9 장, 150-15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가장 합당한 태도를 볼 수 있다. 합당한 태도에는 적어도 아래의 네 방면이 있다.

첫째, 마리아는 ‘주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 ... 그녀는 주님을 가까이하였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자라는 가장 빠른 길이다. 매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경배하며, 끊임 없이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길을 찾았다. ... 바울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살전 5:17)라고 말했다. 사람이 너울을 벗은 얼굴로 그의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통한다면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된다(고후 3:18).

둘째,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았다. 이것은 그녀가 가장 겸손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태도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벧전 5:5). 겸손은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겸손은 우리 자신을 무시하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며, 우리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깊은 곳에서 나온 겸손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

셋째, 마리아는 '앉아 있었다'. 그녀는 언니처럼 바쁘지 않았다. 잠잠함은 종종 영적 능력의 근원이 된다.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지 못하고 항상 그들의 눈과 생각이 바깥세상으로 향하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몸의 지체 중에서는 눈이 가장 바쁘고, 혼의 기능 중에서는 생각이 가장 바쁘다. 바쁜 사람은 계시를 받기가 가장 어려운 사람이다. 산만한 생각은 마치 끊임없이 파문(波紋)이 일어서 호숫가의 꽃과 나무가 수면 위에 분명하게 비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주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새겨져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려면 반드시 주님 앞에서 잠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영과 생명이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그분 자신을 사람에게 주신다.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은 주님께 그분 자신을 그녀에게 전달해 주실 기회를 드렸다. 그 결과 마리아는 주님을 얻고 주님과 똑같이 되었다. 그녀는 계속 주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단지 그분의 말씀만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만나고 있었다. ... 만일 우리가 어떤 설교에서 사람의 음성만을 듣고 그 음성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일 것이다. (워치만 니 전집, 38 권, 일반 메시지(2), 39 장, 29-31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38 권, 일반 메시지(2), 39 장;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19, 21-22, 33-34, 38 장

8/10 수요일

아침의 누림

골 1:18

18 또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 자신께서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행 13:36

36 다윗은 하나님의 의결에 따라 자기의 세대를 섬기다가 잠들었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어 썩었습니다.

엡 4:12

12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엡 4:11

11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마 16:18

18 또 내가 그대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베드로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음부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벧후 1:12

12 그러므로 여러분이 비록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고, 또 현재의 진리 안에서 견고해졌지만,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이러한 것들에 관하여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계 19:7-9

7 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

8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9 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기록하십시오. 어린양의 결혼 잔치에 초대받은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는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계 21:2

2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이 왕이 될 때 다윗의 왕국에서 자신은 두 번째가 되리라고 예견했다 (삼상 18:1-4, 19:1-7, 20:8, 14-17, 41-42, 23:16-18). 사울의 의도는 요나단을 위해 왕국을 보존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요나단은 왕국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다윗이 보좌에 올라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에게 이것에 관해 말한 다음 아버지를 떠나 다윗과 함께했어야 했다. 성경의 예표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따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께 으뜸의 지위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 그의 아버지를 향한 천연적인 애정 때문에 다윗을 따르지 않고 대신 그의 아버지와 함께 머물렀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와 동일한 운명을 맞이하여 전쟁터에서 아버지와 함께 죽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에서 자신의 몫을 합당하고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가 자기 아버지를 향한 천연적인 애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윗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9 장, 151-152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역이 있었다. 시대의 사역은 지방적인 사역과 같지 않다. 루터는 그의 시대의 사역자였다. 다비 역시 그의 시대의 사역자였다. 매 시대마다 주님께는 성취하기 원하시는 특별한 일들이 있으시다. 주님은 그분 자신이 회복하셔야 할 것들과 이루셔야 할 일들이 있으시다. 한 시대에서 주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특정한 회복과 일이 그 시대의 사역이다.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 섰다. 그는 한 사람으로서 두 사역 사이에서 있었다. 그는 두 번째 사역을 따랐어야 했지만, 첫 번째 사역과 너무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다. 시대의 사역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상을 볼 필요가 있다. 미갈은 다윗과 결혼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상태만 보고서 그것을 참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뒤처지게 되었다(삼하 6:16, 20-23).

어떤 사람이 시대의 사역을 보고 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지만, 그 사람이 용기를 내어 과거의 사역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현재의 사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 사람이 지나간 사역을 한쪽에 제쳐 둘 수 있는가 없는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 (워치만 니 전집, 57 권, 워치만니 사역 재개 메시지 기록, 25 장, 345-346 쪽)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갈망하셨다. ... 그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는 두 가지 다른 사역이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두 가지 다른 인도 직분이 있지도 않았다. 다윗 시대에 인도한 사람은 바로 다윗이었다. 다윗 후에 ... 솔로몬이 인도하는 사람이었다.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에 참여한 첫 번째 사람은 주 예수님이셨다(마 16:18). 주님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위하여 그분은 열두 명의 사도를 선택하시어 교회를 건축하는 사역 안으로 이끄셨다.

이 시대에도 역시 주님의 사역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 주님의 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시대에 주님의 사역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보게 해주시기를 바란다.(새 길을 위한 훈련의 말씀(상), 2 장, 33-3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57 권, 워치만니 사역 재개 메시지 기록, 25 장; 새 길을 위한 훈련의 말씀(상), 2 장

8/11 목요일

아침의 누림

삼상 15:23

23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피우는 것은 우상숭배와 드라빔과 같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셨으므로 그분도 왕을 거절하시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갈 5:24

24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마 16:24

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삼상 15:22, 24-26

22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보다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기뻐하십니까? 보십시오, 순종하는 것이 희생 제물보다 낫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24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음성만 듣고 여호와와 그의 말씀과 어르신들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25 그러니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경배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돌아가 주십시오.”

26 그러나 사무엘은 사울에게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와 그의 말씀을 거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거절하시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롬 8:13

13 여러분이 육체를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그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빌 2:3

3 어떤 일도 이기적인 야심으로 하지 말고, 헛된 영광을 위해 하지 말며, 오직 생각을 낮추어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갈 5:25

25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사울은 하나님께 선택받고 사무엘에게서 기름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삼상 9:17, 10:1, 24).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적어도 두 번 불순종했으며, 그 결과 자신의 왕권과 왕국을 잃어버렸다(삼상 13:13-14, 15:19, 23, 28:17-19). 사무엘기상 15 장에서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사실상 그는 하나님께 반역하였다. 따라서 이 장에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 고집을 피우는 것은 우상숭배와 드라빔과 같습니다.”(23 상절)라고 말했다. 점을 치는 것은 하나님의 원칙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인 악한 영들을 접촉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거역했을 때 사울이 한 일은 점을 치는 그러한 죄와 같았다. 그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았으며, 사실상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그는 자신의 왕권을 잃어버렸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9 장, 153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사울의 비극적인 종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사울이 겪은 비극은 전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경륜에 합당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분의 경륜을 수행하고 계시며, 사울을 그분의 경륜 안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경륜에 참여하고 동역하는 대신, 사울은 이기적이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민 가운데 그분의 왕국을 세우기 원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왕국을 강탈하여 자신의 군주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 사울은 왕으로 임명된 후에, 즉시 왕권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했으며, 어떻게 하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뒤를 이을 것인지를 고려하였다(삼상 20:31). 이 문제에서 사울은 이기적이었으며 크게 잘못하였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포기하시고 그를 잘라 내셨으며 왕국을 찢어 내시어 그에게서 가져가 버리셨다(비교 삼상 15:28). ... 하나님께서 사울을 포기하셨으므로 사울은 고아와 같이 홀로 남게 되었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비록 다윗이 매우 능숙하고 노련한 전사였을지라도, 사울의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인하여 사울에게 다윗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았다. 사실상, 사울이 다윗을 없애려고 했던 까닭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나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삼상 27:1-2).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항해 싸우려고 그들의 진영들을 모았을 때, 아기스왕을 지키는 사람이 된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항해 싸우기 위해 블레셋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궁지에 빠졌다. 이것은 사울의 이기심의 결과였다. 또한

사울의 이기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하고 살육당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사울을 다루셨고, 다윗을 그러한 궁지에서 건져 내셨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모든 항목들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것은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몇 가지 공과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먼저,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예시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공과를 배워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이기심 곧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을 유죄판결 하기를 배워야 한다. 더 나아가, 사울은 자아로 충만했으며, 그의 비극적인 종말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기를 배워야 한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분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마 16:24).

사울의 끔찍한 최후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결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별도의 일을 하거나 왕국 안에 있는 어떤 것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경고가 된다.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일하고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해 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사울의 비극적인 종말로부터 하나님과 장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를 받아야 한다. ...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인 왕국을 건축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 ...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갖고 있다. 우리는 자신의 권역에 있는 일만을 주의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군주국을 세우려고 시도하는 오늘날의 사울이 되지 말아야 한다.(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7 장, 134-136, 141 쪽, 18 장, 14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전집, 34 권, 영광스러운 교회, 3 장

8/12 금요일

아침의 누림

삼상 13:14

14 그러나 이제 왕의 왕국은 지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와는 그분 자신을 위하여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셨고, 여호와와는 그 사람을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삼상 16:7

7 그러나 여호와와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용모나 키의 크기로 평가하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거절하였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겉모양을 보나 여호와와는 마음을 보기 때문이다.”

삼상 30:6

6 다윗은 큰 곤경에 빠졌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자기 아들딸들의 일로 혼이 괴로워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 그의 하나님 안에서 기운을 내었다.

삼하 5:10

10 다윗은 갈수록 강성해졌으며,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셨다.

행 1:24

24 그들이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주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을 밝히 보여 주시어,

행 13:22

22 그를 물러나게 하신 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 대해 확증하셨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았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며, 나의 모든 뜻을 이룰 것이다.’

겔 36:26

26 내가 또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며, 너희 육신에서 돌 같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고기 같은 마음을 주겠다.

왕상 8:39

39 주님의 거처인 하늘들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행동하시어,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모든 길에 따라 갚아 주십시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시 7:9

9 오, 악인들의 악을 끝내시고 의인을 세워 주십시오. 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속부분을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잠 21:2

2 사람의 길이 자기 눈에는 다 옳아 보이나 여호와와는 그 마음들을 달아 보신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선택받고 기름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삼상 16:1, 12-13).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후에 이스라엘 여자들에게서 사울보다 더 높이 칭송을 받았다(18:7).

다윗에게서 우리는 그가 교만하게 되었다거나 왕권에 대한 야심을 갖게 되었다는 어떤 암시도 볼 수 없다.

기름부음을 받은 후 이스라엘 왕으로 보좌에 앉기 전까지 다윗은 주전 약 1063 년부터 1057 년까지 대략 칠 년 동안 사울의 박해 아래서 시련을 통과했다. 다윗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움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할 적격자로 인정받았다.

다윗은 사울의 박해 아래 있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다(삼상 24, 26 장).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을 해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합당한 질서를 지켰음을 가리킨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9 장, 15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은 기뻐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울의 죽음을 보고한 사람을 죽이고 사울을 위해 장송가를 불러 그를 칭송하고 지극히 높였다(삼하 1 장).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볼 때, 분명 다윗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복수하지 않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을 것이다(삼상 13:14 상).

다윗은 온갖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행한 사람이었다(삼상 17:36-37, 23:14-16, 30:6 하-10). 시험당하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였고, 하나님을 따라 행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민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좋은 땅을 누리는 면에서 참된 이스라엘 자손의 전형적인 본이 되었다. 다윗은 좋은 땅에 머물며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고 그분을 섬기기를 기대했다(삼상 26:19 하). 다윗은 순수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왕권을 얻고 이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된 한 왕국을 다스릴 정도로, 높은 수준에서 좋은 땅을 충만하게 누릴 자격이 있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였다. 그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것은 그의 것이었다. 다윗과 하나님에게는 오직 하나의 왕국이 있었다. 이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예표인 좋은 땅을 극도로 누린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다는 것은 ... 그의 요새인 시온성과 예루살렘을 건]축한 것에서도 볼 수 있다(삼하 5:9). 더 나아가 “다윗은 갈수록 강성해졌으며,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셨다.”(10 절) 이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우리에게 그분의 임재가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 참으로 주님을 따른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분의 임재를 가질 것이다. 어떤 일에서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내적인 느낌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의 깊게 우리의 길을 재고해 보아야한다. ...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무언가를 할 때마다, 반드시 주님의 임재의 느낌을주의해야 한다.

다윗에 관한 모든 것은 한 가지를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시 아래 안배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합당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민 가운데 그분의 왕국을 건축하시는 것이었다. 그 당시에 합당한 사람은 다윗이었지만, 오늘날에는 회복 안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 이 시대에 ...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려는 특별한 일은 오늘날의 세상적인 기독교에서 상실했고 또 놓치고 있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21 장, 155-156, 167, 16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4 년, 4 권,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 11 장

8/13 토요일

아침의 누림

딤후 2:22

22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십시오.

삿 5:15-16

15 잇사갈의 족장들이 드보라와 함께하였으니 잇사갈은 바락에게 충성하여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들어갔다네. 르우벤의 분파들 가운데에는 마음에 큰 결심이 있었다네.

16 그대 어찌하여 양 우리들 사이에 앉아 양 떼를 부르는 피리 소리나 듣고 있는가? 르우벤의 분파들 가운데에는 마음에 큰 성찰이 있었다네.

고전 6:13-20

13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둘 다 없애 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고, 주님은 몸을 위해 계십니다.

14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15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16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둘이 한 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17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한 영입니다.

18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으나, 음행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19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 성령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20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을 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다윗은 … 고의적으로 간음을 범했다.

그리스도의 계보에 관한 기록에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마 1:6 하)라고 썼다. 이것은 다윗의 죄의 심각성을 나타낸다.

우리는 긍정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다윗에게서 배워야 한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는 파괴적인 요소이다. 다윗처럼 경건한 사람이 유혹받을 수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을 피할 수 있겠는가? 사람은 사람이고, 육체는 육체이며, 정욕은 정욕이다. 우리는 항상 이성(異性)과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는 문이 닫힌 방에서 이성과 은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서는 안 된다. 이성을 접촉하는 일에서 느슨해도 될 정도로 경건한 사람은 결코 없다. 우리가 영적인 추구에서 이론 업적과 관계없이, 우리 중 어떤 사람도 이러한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3 장, 247, 25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다윗의 결함은 그가 자신의 육체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십 세에 헤브론에서 왕위에 올랐을 때, 그에게는 이미 최소한 여섯 아내가 있었다(삼하 3:2-5). 뒤에, 그는 왕권을 남용하여 우리야를 살해하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다.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에서 사람이 경건한 자녀를 갖기 위해 한 남자가 한 아내를 소유할 것을 정하셨다(말 2:14-15).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원칙을 깨뜨렸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사들 중 하나인 기드온은 많은 아내를 두었다(삿 8:30).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오는 중요한 조상인 보아스는 육체의 정욕을 통제함으로써 훌륭한 본이 되었다(룻 3 장). 사무엘 또한 좋은 본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며, 그는 일생 동안 자신의 어머니의 서원을 지켰다. 반대로, 다윗은 비록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지만, 육체의 정욕이라는 문제에서 크게 실패했다.

다윗의 죄가 매우 악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중한 징벌을 내리셨다.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입지와 위치를 잃었으며, 또한 열두 지파 중 열한 지파를 잃었다. 오직 유다 지파만이 다윗에게 남았다(삼하 20:1-2). 솔로몬의 통치 이후에 왕국은 분열되었고,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은 사로잡혀 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나라와 조상의 땅을 잃어버렸다. 그들은 온 땅에 흩어져 박해받고 음당하였다. 오늘날 그들은 지중해 근처에 좁고 기다란 땅을 소유하고 있긴 하지만, 이웃 국가들과 전혀 평화롭지 못하다.

다윗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적인 심판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로서 기록되었다(고전 10:11).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진지하게 읽어야 한다. 이 기록은 육체의 방종이 심각한 일임을 경고한다. 다윗은 단지 한 번 쳐다봄으로 유혹되었고, 그러고 나서 자신을 제한하는 데 실패했다.

이성을 접촉하는 문제에서,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로 거룩히 분별되어야 한다. 성(性)과 관련된 악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옛사람을 이기기 위해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한다. 이것은 단지 가르침에 그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행되어야 한다.

모든 성도들, 특별히 청년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성찰하여, 절대로 육체의 방종에 빠지는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마음으로 굳게 결심해야 한다(삿 5:15-16). ... 우리는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받아들이십시오.”라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구주와 우리의 역동적인 구원이 되실 것이다. 공기 같은 영이신 그리스도로서 그분은 이 시대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며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얻은 영광을 지킬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4 장, 252, 254-25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과 교회를 인식함, 16, 19-20 장*

찬송

찬송: 904(英) 참 영광스런 우리 왕 그 보좌는 하늘일세

- 1 참 영광스런 우리 왕 그 보좌는 하늘일세 온 세계가 그의 판도 그 통치의 영역일세 그 백성과 함께 거해 그 시련도 함께해서 우리도 그 일 함께해 그 부담을 함께 지네.
- 2 내 왕이신 예수님의 그 거처 난 찾았다네 내 맘 여네 주님께서 그 성전과 보좌 삼게 주 발 앞의 마리아와 주 품 안의 요한처럼 주 임재는 나의 기쁨 그 품은 무한한 안식.
- 3 왕과 함께 왕의 일 해 난 주 계획에 참여해 주 왕국을 가져오게 그 구원을 전파하네 이 세상의 일과 보상 난 다 해로 여긴다네 내 사업은 주의 일뿐 내 메시지는 십자가.
- 4 왕과 함께 왕의 일 해 그 계획을 성취하네 날 위하여 계획하고 또 예비한 목적일세 그 능력으로 채우니 난 즐거이 봉사하네 내 왕의 능력으로써 내 왕의 일 수행하네.

5 왕과 함께 왕의 일 해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머지않아 왕이 오리 영광 안에 나타나리 더 가까이 왕을 뵈고 더 고상한 일 하리라 왕과 동역하는 기쁨 다 표현할 수 없도다.

8/14 주일

아침의 누림

- 계 3:7-8, 10-11, 14-21
- 7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거룩한 이, 참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도록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 8 나는 너의 일을 안다. 보아라,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 왜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10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 주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 11 내가 속히 갈 것이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
- 14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아멘이며,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인 이가 이렇게 말한다.
- 15 내가 너의 일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거나 뜨겁기를 원한다.
- 16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나의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 17 내가 ‘나는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 18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불에 제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 않도록 하며,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
- 19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니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여라.
- 20 보아라, 내가 문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 21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

2022. 8. 8 ~ 2022. 8. 12

단체로 읽을 말씀: “생명 나무”, 8 장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전집, 1964년, 1 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젊은이, 1, 3 장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19, 21-22 장
새 길을 위한 훈련의 말씀(상), 2 장
워치만 니 전집, 34 권, 영광스러운 교회, 3 장
위트니스 리 전집, 1964년, 4 권, 하나님의 건축의 이상, 11 장